

# 운전면허 시험 강화 소식에 면허시험장 북적

## 수능 끝나고 1만여명 접수...전년 동기비 14% 증가

## 운전학원도 고교생·대학생 등 상담·문의 전화 빗발

서류접수와 면접 등 대학 입시가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박정우(19·금호고 3년)군은 주말을 맞아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았다.

박군은 "열마 전 운전면허 가능시험이 내년부터 다시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쉬을 때 미리 따 놓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9시 나주시 삼영동 '전남운전면허시험장'은 지난달 경찰청이 운전면허 가능시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학과시험 접수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운전면허학원들은 대형 버스를 이용해 학원생 긴급수송(?)에 나섰다. 주말을 이용해 자녀와 함께 찾아온 부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접수를 위한 대기시간만 30분 이상이 소요됐다. 오전 9시 접수가 시작되기 전 이미 대기번호는 30번대가 넘어섰고 이후 도착하는 응시자들이 몰리면서 대기자 줄은 건물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1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올해 수능시험이 끝난 11월13일부터 12월10일까지 학과시험 접수자는 1만249명으로 지난해 동기인 8978명과 비교해 1271명(14.15% 증가)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도로주행시험 응시자도 지난해 1250명에서 1343명으로 증가했다.

일반 운전면허학원들은 수능시험이 끝난 뒤 호황을 누리는 '시즌'인 것은 분명하다.

지만 올해는 유난히 상담·문의전화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광산구 D운전면허학원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끝나면 학원등록을 위한 상담전화량이 많이 오는데 올해는 '가능시험이 어려워지는 게 확실하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아직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시험이 강화되기 전 자녀를 학원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일반 운전면허학원 등은 대학과 고등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면 시험 응시자들이 확연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정부는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으로 가능시험 항목을 큰 폭으로 축소했다.

기존 T자와 S자 주행, 평행 주차와 같은 어려운 시험 항목을 없애고 기본적인 조작과 구성, 직선주행만 할 수 있다면 쉽게 가능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운전 전문학원을 다니면서 가능시험을 치르던 풍경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황당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

고가 잇따르자 '가능시험 강화'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22일까지 가능시험을 강화하는 내용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가인 모노리서치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가능시험 강화 찬반 여론조사를 한 결과 67.8%가 '쉬운 면허시험이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이므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18.2%는 '짚은 정책 변화와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져서 반대', 14.0%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지난 13일 오전 나주시 삼영동 전남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이 업무가 시작되기 전부터 몰려든 응시자들로 인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광주교육청, 배임혐의 흥복학원 이사 6명 검찰 고발

## "설립자 이홍하씨 대여금 변제 도우려 이씨 부동산 매입해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흥복학원 이사 6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비 등 900여억원을 횡령한 설립자 이홍하 씨의 대여금 변제를 도우려고 그의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1일 흥복학원 이사장 등 이사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흥복학원 이사회가 수익용 정기예금을 해약해 수익

성이 없는 이씨 등의 토지를 매입, 법인 측에 손해를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흥복학원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이씨와 강모씨 소유의 임야 2필지(2156㎡)를 2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흥복학원 교직원들이 이씨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낸 직후다. 교직원 37명은 지난해 10월 "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해 법인에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흥복학원 이사장과 이씨를 상대로 15억여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사회는 이씨가 대여금을 갚을 돈을 마련해 주려고 토지 매입 결정을 했으며 실제 13억원가량은 빚을 갚는 데 쓰인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임야는 1985년 학교 설립 후 무상으로 사용돼와 이미 학교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매입 필요가 없는 땅을 비싼 가격에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어 흥복학원 측에 수차례 원상회복을 지시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고 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흥복학원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부동산 매입, 대여금 반환 등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교비 등 90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고교 수업료·입학금 동결 시도교육청, 7년째 안올려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이 7년 연속 동결됐다.

14일 광주·전남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내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했다.

내년도 광주지역 고등학교 연간 수업료는 일반고(비특성화고)가 134만8800원·특성화고 130만9200원으로, 타 광역시 고등학교 수업료 평균액 136만4910원보다 낮다. 입학금도 1만7200원 그대로다.

전남지역은 일반고의 경우 지역에 따라 수업료는 연간 63만6000원~115만20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5900원이다. 특성화고는 지역에 따라 수업료는 43만4400원~62만7600원, 입학금은 1만1800원~1만4800원으로 올해와 같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3 달뜨기 00:32  
해질 17:22 달지기 12:51

매서운 칼바람 저기압의 영향으로 차차흐려져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우량은 5mm 내외.

◇ 지역별 날씨 (°C)

광주	-1/8	보성	-4/6
목포	-1/8	순천	0/8
여수	1/7	영광	-3/8
나주	-4/8	진도	-2/9
완도	0/9	전주	-2/7
구례	-3/7	군산	-3/6
강진	-2/8	남원	-4/6
해남	-3/9	홍산도	4/10
장성	-4/7		

◇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동~남	0.5	남서~서	0.5~1.0
남부	남동~남	0.5~1.0	서~북서	1.0~2.5
남해	남동~남	0.5~1.0	남서~서	0.5~1.0
서부	남동~남	0.5~1.5	남~남서	0.5~1.5
면해(서)	남동~남	0.5~1.5	남~남서	1.0~2.5

◇ 생활지수

동파	25
운동	50
빨래	9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7:38	00:48
	19:59	12:55
여수	08:45	02:46
	21:33	15:05

◇ 주간 날씨

16(화)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	☁	☀	☁	☁	☁	☀
1/2	-5/0	-5/1	-3/5	1/5	-3/3	-2/5

# 검찰, '망공리턴' 대한항공기 블랙박스 분석

## 조 부사장 조만간 소환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망공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KE086편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에 착수했다.

원인을 규명해 줄 핵심 증거자료가 된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KE086 항공기의 조종간을 잠पा던 서모 기장을 소환해 회화 과정에서 항공편을 위반했는지와 당시 서모 기내 승무원 등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서모 기장을 출국금지했다.

14일 검찰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태가 벌어질 당시 비행기에 탑재돼 있던 블랙박스를 지난 12일 수거해 외부기관에 복원을 의뢰한 상태다.

조종실음성녹음장치에는 당시 조종석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비행기록장치에는 운항 궤적, 시간 등 관련 데이터가 기록돼 각종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종실음성녹음장치에는 당시 조종석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 비행기록장치에는 운항 궤적, 시간 등 관련 데이터가 기록돼 각종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서비스를 제공했던 승무원과 대한항공 본사 관계자, 부기장 등도 잇따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압수물 분석과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 전 부사장에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연합뉴스

# 광주지법 '대학생 위한 생생사법 마당' 개최

광주지법(법원장 김주현)은 내년 1월 27~30일 열리는 '대학생 위한 생생사법 마당' 행사에 참여할 대학생들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생 사법 마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여름방학부터 시작된 행사로, 법원과 재판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매년 4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나눠 담당 법관의 지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행사 기간을 소재로 검사·변호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모의 법정에서 변론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선정된 대학생 30명은 모두 6개조로

광주·전남 대학생은 15~19일까지 지법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문의는 광주지법 총무과(062-239-1512, 1566)로 하면 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매일 24면...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 kwangju.co.kr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식약청 검역필 41762-14-002447J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정입, 계화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널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1.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2.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3.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4.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5. 소화불량 / 변비예방
6.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강황의 효능

1. 치매예방
2. 당뇨 비만 등 성인병치료 예방
3. 관절염 치료 및 예방
4. 다이어트 효과
5. 항암효과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